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7. 12 통권 제36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12
1997
제36호

편집자의 글
4者회담을 남북 관계의 전환점으로 2

초 점
1997년 남북 관계 회고 • 도준호 4

특 집
1997년 남북 관계의 주요 이슈: 회고와 평가
김정일 승계 • 안찬일 10
경수로 사업 • 윤덕민 17
식량난 • 임원혁 23
4者회담 • 양현수 28

기획연구
시기별로 분석해본 북한의 외교 행태 • 김용호 36

논 단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HJU의 역할 • 신영섭 64
경수로 인력의 북한 체류에 따른 국내법 상의 문제 • 제성호 75

통일다리
현지 지도 • 정창현 93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VII)- '과학 기술' • 황동연 99

통일연구
독일의 경험을 통한 통일 교육으로서의 정치 교육 • 박병석 • 이기선 111

해외기고
재정 이전과 체제 전환:
정부 지원이 구동독 지역 경제 구조에 미친 영향 • Katja Gerling 132

서 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북한 정치 해설서 • 김영수 150
이상우(1997). 「북한 정치 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 원리」. 나남출판
북한을 정확히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 교과서 • 전현준 152
이종석 외(1997). 「김정일시대의 북한」

통 권 제36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12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홍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희
오삼교 이병두
이태섭 이원호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연
편집교열 장문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4者회담을 남북 관계의 전환점으로

90년대 이후 북한이 엄청난 경제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최근 남한 경제 역시 경제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 위기 속에서 4者회담이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남한이 IMF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남한의 독자성은 줄어들 위험이 높다. 따라서 남북 경쟁 등 전반적인 남북한 협력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 관계를 한발짝 한발짝 진전시켜나가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달의 '초점'에서는 조선일보 도준호 편집부국장이 전반적인 1997년 남북 관계를 회고하면서, 그 특징을 북한의 실용주의적 태도 증가, 미국 영향력의 증대, 남한의 정책 의지의 중요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특집'은 올해 남북 관계의 주요 이슈를 회고·평가하는 장으로 삼았다. 먼저 안찬일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일 승계"에서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이 북한 위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직의 신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인지 역사적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난"에서 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식량난이 내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정부는 국제적 지원 활동을 주도하고, 농자재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통일정책연구소 양현수 연구위원은 "4者회담"에서 회담 준비 과정에서 식량회담의 성격, 북미간 접촉의 활발, 중국의 적극적 참여 등의 몇가지 특징이 나타났음을 지적한다.

'기획연구'의 "시기별로 분석해본 북한의 외교 행태"에서 민족통일연구원 김용호 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행태를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3분하여, 냉전기에는 균형 전략과 테러리즘,

탈냉전기 초기에는 정면 돌파 전략, 현재는 미국과의 타협 정책으로 특징짓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줄타기 외교라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논단'에서 먼저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EU의 역할"을 대북 식량 지원 및 투자 확대, 통상 마찰 완화, 동북아공동체의 결성 촉진 등으로 꼽고 있다. 채성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수로 인력의 북한 체류에 따른 국내법 상의 문제"를 방북 절차, 주민 등록 이전, 보험 적용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경수로 사업에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향후 남북한 협력의 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에서는 본 연구원 황동언 주임연구원이 "과학 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과학 기술이 남한보다 10~20년 뒤쳐져 있어, 향후 정치 문제와 관련없는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남북한 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 '통일연구'에서는 박병석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의 "독일의 경험을 통한 통일 교육으로서의 정치 교육"을 실었다. 이 글은 독일의 경험을 분석하여, 우리의 통일 교육에도 기능적·홍보적 교육외에도 민주주의 교육 즉 정치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해외기고'에서는 독일 쾰연구소 Katja Gerling 연구원의 글 "재정 이전과 체제 전환"을 실었다. 이 글은 독일 정부의 소비성, 투자성 재정 이전이 구동독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구동독 지역에 인적 자본 집약적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는 갑작스런 남한 경제의 위기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다 깊이있고, 전향적인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1997년 12월

편 집 자